

계란시장 계절화 가속화 예상



이 홍 열 한국양계농협 상무

1. 서론

모든 농축수산업은 자연환경에 따라 풍작과 흉작이 거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지가격의 등·폭락으로 이어지는데 산란계도 자연환경에 따라 생산과 소비 환경의 변화 정도가 심하게 변동되는 농축산물이므로 1년간의 산란계의 생산과 유통전망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축산물의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생산을 맞추기 위하여 전업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축농가들이 가축사육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량사육에 따른 질병 발생이 잦으며

세계적으로 교역 및 여행이 자유로운 관계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국가에 관계없이 전파속도가 빠르게 전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항만 및 공항 등의 수입품 및 여행객을 상대로 검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자국 내의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몇 년 전부터 질병이 인체에 전이되는 신종질병들이 발생되면서 각 국가마다 세계적인 상황을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안전성 문제로 소비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하여 많은 손해를 입고 축산을 포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는 각 국가마다 선진화되면



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양질의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수준이 발전하면서 축산물의 위생, 잔류물질(항생제 등) 등 안전성 요구에 맞추어 생산을 하고 있으나 축산 농가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생산방식을 개발하여 위생 및 안전 축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끈임없이 발생되므로 소비자는 축산물의 안전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축산물의 소비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축산물의 신종질병으로서는 국내외에서 소와 돼지의 경우에 광우병, 브루셀라병, 콜레라, 구제역 등의 질병들이 양축농가와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다, 가금류 특히 양계분야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03년도 12월 12일 충북 음성을 시발점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04년도 3월 20일 경기도 양주시를 끝으로 잠잠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06년 12월 23일 전북 익산 지역에 발생되어 양계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긴장감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03년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양계농가와 오리 및 가금사육농가가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 또한 축산환경이 변함에 따라 2000년 이전과는 다르게 닭의 산란성적이 우수한 품종이 개발은 되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전체 산란율은 낮아진 경향이 있다. 산란계에서 계란생산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란계사육수수의 파악이 되어야 계란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계란 가격을 예측 및 전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산란계의 사육수수 파악은 병아리 입식과 노계도계수수 및 사료생산실적을 바탕으로 산란계수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확한 산란계 사육수수의 파악은 어려우며 계란 생산량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또한 산란계는 총사육수수대비 6개월령 이상이 산란을 할 수 있는 수수를 기준으로 계란의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으나 이도 우리나라는 보통의 경우 약 50~60주령에 환우(휴산기간)라는 것을 하고 있으며 그 이후 농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1회 또는 2회의 환우를 하기도 한다.

환우는 질병발생시 치료목적과 갑작스러운 소비감소에 따라 계란생산량 조절 목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환우의 부정적인 측면은 계란생산량을 파악하기 힘들며 노계도태지연으로 인한 계란의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로부터 계란 소비를 꺼리게 하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며 노계도태 지연으로 인한 전체 산란계 사육수수가 증가하여 계란의 과잉생산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산란계 농가는 적당한 사육주령을 정하고 병아리 입식시기를 계획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계란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러한 계획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란계산업은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07년도에는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수요처 증가로 인하여 '06년 12월 원료가격 대비하여 약 20%의 상승요인이 있으므로 계란의 생산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축사육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계란판매가격 대비하여 손익이 불투

명한 상황이다.

2. 본 론

산란계의 최근 3년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03년 12월 산란계 총사육수수는 48,351천수와 6개월령이상 산란용 마리수는 36,749천수에 이르고 있었으며 3,000수 이상의 산란계가구수는 2,129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03년도 12월에서 '04년 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의 살처분과 병아리 및 중추 입식제한과 양계산물 소비둔화에 따른 계란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입식의향이 낮아 '04년 3월 산란계사육수수는 46,493천수인 3.8%가 감소하였으며 사육가구수도 1,911농

표1. 산란계 사육수수 변동추세

단위: 천수, 가구

구분 (년월)	산란계 사육수수	6개월령이상 산란용 마리수	사육 가구수
03.12	48,351	36,749	2,129
04. 3	46,493	36,410	1,911
6	48,058	37,298	2,043
9	49,092	36,990	2,075
04.12	51,419	37,507	2,043
05. 3	51,371	37,767	2,069
6	54,390	39,926	2,314
9	55,017	40,068	2,364
12	53,392	41,512	2,310
06. 3	53,517	42,595	1,863
6	55,200	42,520	1,905
9	55,388	43,000	1,92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농촌경제연구원

가로 10.2%가 산란계를 포기함으로써 인하여 감소하였다. 그 이후 입식제한의 해제와 계란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산란계사육수수가 증가하여 '04년 12월 산란계사육수수는 51,419천수로 '04년 3월대비 10.6%가 증가하였으며 산란계에서 생산비 대비하여 계란 개당 약 30원~60원의 수익을 창출하다보니 농가의 입식의향이 높아지면서 산란계사육수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5년 9월 산란계사육수수는 55,017천수로 증가하였으며 6개월령 이상의 산란용 마리수 또한 40,068천수로 증가하고 사육가구수도 2,364가구로 '04년3월 대비 각각 18.3%, 10%, 23.7%가 증가되었다. 계란의 과잉 생산은 '05년 4월 20일을 기점으로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고의 체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그래도 생산원가이상의 계란가격으로 인한 산란계 가구의 입식의향 높았으며 가구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높은 수익으로 인한 농가별 규모화가 진행되어 산란계 가구당 평균사육수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래서 '06년 9월 산란계사육수수는 55,388천수로 증가되었으며 6개월령이상 산란용마리수는 43,000천수로 증가 되었다.

6개월령이상 산란용마리수의 증가는 '05년 4월 말 계란의 과잉생산이 시작되면서 계란 가격의 불안으로 산란종계의 자율쿼터제를 도입하여 418,000수의 유지와 '05년 9월부터 '06년 1월까지 부화업계의 자율적인 병아리생산을 2백만수로 감산을 협의하여 산란계 수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산란계적정사육수수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농가의

계란가격상승의 기대심리로 인한 노계도태가 지연되면서 6개월령 산란용마리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외국의 산란종란 수입국의 조류인플루엔자발생으로 인한 종란수입차질 등으로 병아리 공급 능력부족에 대한 계란가격상승기대가 겹치면서 노계도태지연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 그로인한 '06년 12월 산란계사육수수는 약 5,650만수로 예측되며 '07년 3월 약 5,700만수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령이상 산란용마리수는 약 43,000천수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계란의 과잉생산은 '07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계란의 가격은 생산비이하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의 유통을 살펴보면 산란계적정사육수수이상에서 계란생산은 과잉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유통은 계란의 보관능력의 떨어지므로 소비를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판매가불가하고 산지에서 덤핑되는 가격이 산지가격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며 이는 계란발표가격의 DC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소매유통을 전담하는 할인점의 경우 '05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세일행사를 하고 있으며 '06년은 매월 세일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계란구매시 정상가격보다는 세일가격에 길들여져 있으며 정상가격구매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산과 유통을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생산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3. 결론

계란의 생명은 신선도에 있다. 이렇게 계란이 과잉 생산되고 적기에 계란이 소비되지 않으면 신선도는 저하되고 소비자는 계란의 구입을 꺼리므로 인한 소비둔화는 가중되고 이는 지속적으로 산란계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져 우리 양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07년도 산란계산업의 방향은 첫 번째 적정 산란계사육수수와 6개월령 산란용 적정마리수의 사육이다.

우리나라 계란 소비를 대비하여 산란계적정사육수수 살펴보면 국민 1인당 연간 202개라고 가정하면 산란계 3개월 미만 약 620만수와 3~6개월미만 약 600만수, 6개월령이상 산란용마리수 약 3,800만수가 적정산란계사육수수라고 판단되나 질병 등을 감안하면 각 월령별 증가시켜 총 산란계사육수수는 약 5,200만수면 적정사육수수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고품질의 계란생산이다. 계란의 고품질은 신선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가요구하는 계란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가격 또한 일반농가와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계란은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 파각란이 없으며 잔류물질(항생제 등)이 검출되지 않은 계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계란생산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계란가격의 안정에 있다. 계란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산지가격결정이 중요하며 시장흐름이 반영되지 않으면 산지가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산지가격을 받

표하는 것은 생산자가 받고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조절의 의미도 있으므로 정확한 소비흐름을 파악하여 결정되어야한다.

네 번째 농가별 계획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계업도 물론 돈을 벌기위하여 양계업을 하지만은 돈을 벌기 위하여 과수요기를 겨냥한 생산은 계란의 장기적인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계란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양계산업 발전을 저해하므로 농가별 계란가격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생산주령을 정하여 노계도태시기와 병아리 및 중추 입식시기를 정하고 기록관리를 통한 경제성을 분석하여야 결정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생산자브랜드 개발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란시장의 변화는 계열화 형태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계란시장의 규모가 소비자 시장으로는 1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업이 계란유통에 참여하여 그 취급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풀무원, 오투기, CJ, 대상 등이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계란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료회사들은 계란유통에 계속적으로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입한 사료회사들도 있다.

이는 판매자에 의하여 생산자가 종속관계로 전락될 수 있으므로 농가의 경쟁력차원에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 조직을 통한 브랜드상품 개발을 통한 유통이 필요하다. 향후 계란의 가격은 브랜드별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계**